이판사판으로 믿는다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내가 불을 켤 줄 모른다면 다 같이 컴컴하게 살 수 밖엔 없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믿고, 믿는 것도 그래요. 내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가설이 돼 있거든. 자식이다 부모다 부부다 하는 가설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주인공에 탁 맡기고, 둥글려서 맡기고 있으면 어디 갔다 안 들어온들 걱정이 되나?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벌써 "어디 갔다 왔느냐.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진짜 사랑을 한다면 난 그러고 싶어요. 사랑을 진짜 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받아지질 않아요.

그러니 남편이든 자식이든 또는 부인이든 모두가 그저 마음 편안하게 믿어 준다면 아무 데를 가도, 또 그 남편이나 자식은 자기 어머니를 믿고 자기 아내를 믿고 이럭하고선 태평하게,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순수하게 무슨 일이든 잘되겠죠. 그런데 안에서 바둥거리면 바깥에서도 허둥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둥지둥 허둥지둥하다 보면 일은 일대로 못 하고, 일은 일대로 잡쳐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둥거리니까 점점 더 달아나가게 되고, 이게 아주 몹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 깊이 좀 잘 들어야 돼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이렇게 했더래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주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에다가 자식조차 또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거야.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거나, 학교는 나간다는데도 며칠씩 안 들어오고 기껏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들어오면 뭘 하느냐.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이러고는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있다 하는 소리가 "남편 덕 없는 놈이 자식 덕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저 모두 나가서 빌어먹든지 깡통을 차든지, 나가서 그냥 다리 옹두라지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허술히 그냥 말을 뱉은 것이 정말 그 이튿날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남편은 유치장에 가 있고 그렇더라는 거지. 그러니 누구 속을 썩이는 거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썩는 거라.

차라리 그냥이나 뒀더라면, 차라리 모든 것을 그저 그냥 믿고 여기다 맡기면 가설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 밝아져서 오히려 "엄마!" 하고 들어오고 "아유, 왜 내가 술만 먹으면 당신한테 이래?" 하고 뉘우칠 수 있는 것을, 그런 길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뱉어 버리는 그것이 독이란 말야, 독. 아주 극치적으로 속이 상할 때는 독이 나오거든. 가설이 된 그 줄에 독이 가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이면서 이건 생활이다 이거야.

그러니 어차피 나왔다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걸 서로 모여서, 즉 말하자면 놀러 한 철 나왔다가 만난 인연들인데 진짜 사랑하고 그러려면, 진짜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을 해 준다면 가설된 대로 점점 다 밝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는, 한 번 밝아져 두 번 밝아져 세 번 밝아져 그러다 보면 그 부인이 생각한 대로 '아, 내가….' 하고 자기는 회개를 하는 거야.

또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는 '내가 그렇게 망종같이 해도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해 주시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러지 말고 속으로도 밉지 않게 그냥 내맡겨라. 너도 한 철 놀러 나왔고 나도 한 철 놀러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담의 말로 자식이다 부부지간이다 하는 것도 자기 소관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거야. 다 같이 놀러 나온 거야. 놀러 나왔다가 맺어진 인연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서 여자를 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게 그렇게들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따뜻하게 말해 주고 따뜻하게 행을 해 준다면 항상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돼 있고, 물은 항상 골짜기에서 깊은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마음을 신성하게 갖고, 오늘부터라도 신성하게 갖고 '사랑을 한다, 사랑을 안 한다'를 떠나서 내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붙들고 울지언정 '서로 만난 인연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 속을 안 썩이게 당신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울더라도 울어라.

거기다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소용이 없어. 오히려 달아나가. 자꾸 달아나가. 이건 마음의 놀이기 때문이야, 마음 놀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가지 긁으려면 내가 오히려 물에 빠져서 퍼덕거리게 되는 이치가 많거든. 내가 빠지지 않고는 남을 물에 넣을 수가 없거든. 내가 속이 부릉부릉 끓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말을 하느냐 이거야. 말을 하게 되면 내 속이 더 썩지.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지, 그쪽 망가지지. 다 망가지게 돼 있어.

진짜 사랑을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식도 어렸을 때 고분고분히 엄마 말을 듣고 이럭할 때, 그 조그마했을 때 그때뿐이지 거기서 조금 머리가 커지면 벌써 그걸 각오해야 돼.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 같이 놀러 나왔던 인연들이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거. 내가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 공부 공부 공부…" 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세 살 먹은 애도 차에 치일까 봐 쏜살같이 달아나가더라고. 세 살 먹은 아이도 저 살 궁리를 하는데 어째서 모두들 저 살 궁리 안 하겠느냐 이거야. 빤한데, 벌써.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공부 공부 공부" 하다 보니까 이건 자기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자기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여유를 주질 않아. 그러고도 귓전에 자꾸 들어오니까 지겨운 생각이 들어가. 자기가 개선해서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어야 능률이 나는 거지 남이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은 능률도 안 생겨.

그리고 모든 점에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좀 더 능동적인 지혜로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나 말 자세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내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은 내 거니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고 내가 꼭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면서 놀러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마음으로다가 그냥 딱 묶어서 항아리 속에다 딱 넣어 놓고 이렇게 한다면 넣어 놓은 사람도 그걸 지키느라고 꼼짝 못 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꼼짝 못 하고, 이거는 산 지옥이지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소?

그러니까 좀 넓게, 그렇다고 해서 다 괭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거기다가…. 이 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안에서 어디 가질 못해요. 전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널리 울을 쳐 놓고, 지금 있는 게 이 지구 아니겠소.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죠. 지금 울타리를 널리 쳐 놓고선 그 안에서들 지금 사는데 그 안에서나마 좀 활력성 있게, 좀 마음이 좁지 않게, 지혜로이 나가게끔 자꾸 개선해 주는 게, 어머니나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게 서로 똑같이 해야 할 일이라.

여러 말을 해도, 우리가 근본적인 이 도리를 모르면 여러 말 해 줘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이 세상 이치는 전부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고정됨이 없다. 그러니까 공했다. 그러니까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생활을 바로 누가 하는가? 자기 안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이걸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바로 마음 내는 주인이 끌고 다닌다. 그러면 그 마음 내는 자체가 바로 그 몸속에 든 영혼들을 전부 한마음으로 몰아서 다스리는 거거든.

사람은 모두 모르지만 이 속에서요, 팔자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몸속에 다 있어요. 팔자 운명 뭐,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이게 다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들어 있다고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로써 몸뚱이는 받지만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영혼들이 전부 자기한테 인과로 뭉쳐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서 우굴우굴 우굴우굴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저지르려면 남을 시켜 가지고 남한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딪치게 만들고, 또 자식한테 들어서 자식한테 부딪쳐서 싸우게 만들고 부부지간도 역시 그렇게 만들고 재난이 드는 것도 역시 그렇고 병고가 생기는 것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의학술로는 35%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아, 요것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요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요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저 모조리, 모조리 거기서 나온 거라고 거기 맡겨 놓고선 돌아갈 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고달픈 거를 평화스럽게 해 주는 것도 너. 모든 것이 거기니까. 모두 한군데 맡겨 놓는 작업만 열심히 하면 그뿐이지 내가 잘되겠다 못되겠다 왜 참섭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거기 갖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주인이….

이 몸속에 있는 영혼들도 전부 한데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뭉쳐지니까 살고 흩어지니까 죽는다는 얘기야. 이 마음들도, 의식들도 뭉쳐져야, 이 한마음, 다스리는 마음을 따라 줘야 전부 몸도 건강하지.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지, 몸이 건강하니까 돌아가면서 내 가정도 건강해진다 이거야. 첫째, 속 안 썩으니 건강하지. 또 파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하고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거든.

그 묘법을 그렇게 두고도 항상 믿지 못해서 아등바등…. 여기서 듣고 나가면 그냥그냥 흘려버리고는, 실오락지 같은 게 어디까지 가다가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아 버려. 이 세상의 팔자 운명 그런 것들을 전부 한데 합쳐서 이 주머니 속에 모두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 주머니 속에다 되넣는다면 앞서 것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난 요새 말도 하기 싫고…. 한 날 저 바람 불고 나뭇잎 나부끼고, 피었다 시들고 시들었다 피고 물 흘러 돌고, 세상이 그렇듯이, 또 세상이 그런가 하면 우주 자체가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데 말이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그만하면 족하다는 셈으로 아, 좀 그렇게 살면 좀 어떻소! 아니, 그렇게 복작거리고 그렇게 해서야 어디 사람 살맛이 나겠소? 내일 아침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요새 같은 세상에 먹게 하는 것도 너, 굶기는 것도 너, 아, 그렇다면 입히는 것도 너, 못 입히는 것도 너, 집에서 못 살게 내쫓게 하는 것도 너, 집에서 살게 하는 것도 너, 모두 너라면 그렇게 아둥바둥할 것이 뭐 있소?

머슴을 사는데 말이오,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주인이 시장 봐다 주면 그저 그대로 반찬 해서 먹고, 또 안 사다 주면 안 사다 주는 대로 하고 "가서 해 오너라" 그러면 해 오고, "저거 가서 보고 오너라" 하면 보고 지키고,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럴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소? 뭐 그렇게 그 습이, 그냥 '나'라는 습에서 영 떠나지를 못하시니…. (녹음 안됨)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9월 10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그만하면 족하다는 셈으로
좀 그렇게 살면 어떻소.
아니, 그렇게 복작거리고 해서야 어디 살맛이 나겠소?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